

눈앞에서 본 미국의 '드론 참수작전'...'김정은 충격 클 듯'

미국, 북한과 특수관계였던 이란에 군사 행동
북 당장 도발 보다 대응책 및 향후 전략 수집 나설듯
김정일, 아프간 · 이라크 전쟁때 25 · 50 일 잠적

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벽두 '장애물'을 만났다. 미국이 지난 3 일(현지시간) 이란군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(쿠드스군)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로 제거했기 때문이다. 이번 작전은 북한이 그동안 경기를 일으켜온 '참수 작전'의 전형적인 사례다.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 일(현지시간) “이란이 보복 공격할 경우 이란의 52 곳을 공격 목표지점으로 정했다”며 추가 공격을 시사했다. 이어 미국은 병력 3500 명을 중동지역으로 급파하며 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에 발 빠르게 대비하고 있다.



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말 나흘동안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.

북한은 5 일 오후까진 표면적으로 직접적인 반응은 절제하고 있다. 그러나 “강자 앞에선 비굴해지고 약자 앞에서는 포악해지는 것이 제국주의자들 행태”(5 일 노동신문)라며 간접적으로 이란 편을 들고 있다. 북한과 이란은 핵 · 미사일 기술을 교류하는 등 외교적으로 관계가 두텁다.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두 나라를 ‘악의 축(axis of evil)’로 규정할 정도로

미국의 눈 밖에 나기도 했다. 이용호 외무상은 2018년 8월 이란을 방문해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.

정부 당국자는 5일 “미국은 솔레이마니 제거를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”며 “북한은 당장 자신들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따지고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.

당장 북한은 김 위원장 신변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.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“과거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북한 최고지도자는 공개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한동안 잠적하곤 했다”며 “미국이 당장 북한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적지만 김 위원장 입장에선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”고 말했다. 자라 보고 놀란 가슴,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격이다. 그동안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정하는 등 거침없는 공개활동을 해 왔던 김 위원장의 행보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.



조선중앙 TV 가 2 일 '영원히 가리라 백두의 행군길을'이라는 제목의 새 기록영화를 방영했다. 이 기록영화에는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오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담겨있다.

실제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1 년 10 월과 2003 년 3 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공격했을 당시 각각 25 일과 50 일 공개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다. 솔레이마니에 대한 공격 움직임은 지난달 27 일부터 감지됐다.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건너뛴 데 이어, 그동안 대대적으로 선전해 왔던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(통상 1 월 1 일)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도 신변 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.